/사진=JTBC '사건반장'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.17일 JTBC '사건반장'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한 무인점포에 남성 A씨가 들어왔다.매장 내 폐쇄회로(CC)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스크림 두 통을 고르더니 계산대 앞으로 향한다. 그는 바코드를 찍은 뒤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 기계에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다.그런데 갑자기 A씨는 '결제 취소' 버튼을 누르더니 아이스크림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었다. 이후 기계에서 반환된 지폐를 챙겨 들고 매장을 떠났다.영상을 제보한 매장 운영자는 A씨가 약 1만4000원 상당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갔다고 추정했다.운영자는 "지폐가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. 하루 장사를 망칠 수도 있는 것"이라며 "가게에 반려견의 대변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종종 있다.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"고 밝혔다.이를 본 누리꾼들은 "진상도 가지가지다", "스스로는 머리 좋다고 대견해하겠지", "은행 가기 귀찮냐", "영업 방해 아닌가" 등 반응을 보였다.